

사순제 2주일

기도서 P. 254 C해

제1독서(창세 15. 5-12, 17-18)

제2독서(필립 3. 17-4. 1)

복음(루카 9. 28-36)

숲정이

발행인	김 환 철
인쇄인	김 봉 회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02935)

□ 강론



깨어 나라

조 정 오 신부

옛날 어떤 젊은이가 나이가 차서 婚姻을 해야겠기에 배우자를 敎히려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동안 길을 가며 배우자를 찾던 중 너무도 피곤하여 길 옆 나무 그늘에서 잠깐의 잠을 잤습니다. 꿈 속에서 아름답고 부유한 良家 집 규수와 성대하고 화려한 婚禮式을 올리는 꿈을 그리며 나무에 기댄 채 잠깐의 오수를 즐기고 있는 사이, 그 젊은이가 平素에 그리던 이상적인 배우자를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먼저 공주가 많은 侍女와 길을 가다가 그 젊은이를 發見했지만 그냥 지나쳤고, 돈많은 재벌의 딸이 역시 그 길을 지나갔지만, 그 젊은이를 깨우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세의 美人이 길을 가며 젊은이를 보고 호감이 갖지만, 깨울 용기는 없었습니다. 잠깐의 放心은, 잠깐의 동몽한 상태, 잠깐의 잠은 권세와 富와, 美의 條件을 갖춘 세 배우자를 모두 잃고 만 結果를 낳았습니다.

오늘 福音에서 루카 사가는 잠을 깨 세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잠깐의 졸음과 放心으로 많은 것을 놓치고 맙니다.

우리의 精神을, 우리의 信仰을 쫓겨 하는 일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만 집착해 버리는 편견과 정신적인 혼수상태, 그리고 무사안일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천생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라는 제자들의 辨은 바로 이 안일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현재, 우리의 활동과 우리의 손길을 바라는 일들이 교회안과, 밖에 산적해 있는데, “나 하나 쫓아야...”하는 사고방식으로 회피하고 방심해 버림으로써 우리는 많은 것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그 無限한 능력의 後光에 눈이 부셔 혼수상태에 빠져서, 안일하게 그를 따르기만 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잘 살게 해주리라는 편견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는 평소애 그리스도의 참 모습이 보였을리 만무합니다. “아침 저녁기도나 잊지 않고, 주일미사에 빠지지 않으면 구원받겠지...?” 하는 안일과 나쁜 방심상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우 여러분!
이 사순절만큼이라도, 아니 이 주간만큼이라도 우리는 잠 속에서 깨어납니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리라는 착각에서, 快樂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리라는 환상에서, 권세가 우리를 뿌듯하게 해주리라는 망상에서 깨어납니다. 게슴츠레한 눈을 부리고, 두 눈을 크게 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고통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똑똑히 봅시다. 그리하여 하느님으로부터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는 칭찬을 받는 신앙인이 되도록 합시다. <덕진 전주교회 보좌신부>



유비(流蜚) 통신

요사이 「유비 통신」과 「카드라 방송」이라는 시대성을 함축하고 있는 새로운 유행어가 나온다.

「유비」 통신인즉 「유언비어」 통신의 줄임말이다. 풀어 말하면 근거를 확인할 수 없고,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소식을 이른다.

우리들은 남이 한 말을 전할때 “어떻다고 하더라”라고 덧붙인다. 이 말은 경상도에서는 “어떻다 카드라”라고 발음된다. 여기에서 연유된 말이 「카드라」 방송이니, 말하는 당사자가 그 사실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옮기는 소식을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유비 통신이나 카드라방송에는 정통한 소식통의 그것보다는 군살이 불기 마련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유비통신이나 카드라 방송이 떠돌아 다닐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뭘가 일이 터지기는 터졌는데, 그 내막이 알려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나름대로 추측을 하기 마련이다. 그러다보면 발없는 말은 천리를 머다않고 나른다. 그러면서 또 그럴듯한 치장을 하게 마련이다. 이것이 문제이다. 처음에는 다른 뜻은 없이 떠돌던 말이 이제는 세상을 “소란하게 하거나 남을 모략하려고 터무니없이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말”인 流言蜚語가 되고 만다.

사실은 사실대로 신속하게 알려져야 한다.

사실이 사실대로 알려지지 않을때 쓸데없는 억측을 불러 일으키게 되고, 또 그것은 국가의 질서마저 흔들리게 하기도 한다. 또 하나는 임금님 귀에 대해 제일 잘 알고 있는 이발사의 소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말이 유언비어로 몰려 벌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일이다. 독재자들이 가끔 법하게 되는 어리석음이 이것이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사실은 드러나게 마련인데도...

숲정이 산책





민족 복음화 운동

—레지오 마리에

레지오 마리에에는 한국선교 200주년(1984년)을 앞두고 신자배가운동을 통한 200만 교세확장을 결의한바 있다.

전주교구의 <파티마의 모후 썸시움(단장 金厚滿)>도 전주교구 설정 50주년을 맞으며 레지오 마리에 활동을 통한 교회의 새로운 모습 구현을 다짐하고 있다. 따라서 레지오 마리에 단원들은 먼저 “내적쇄신”을 이루어 교회가 요구하는 레지오 마리에 사도적의 사명감을 재인식하여 순교자의 정신으로 거교회적인 선교사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겠다.

다음은 레지오 마리에 단원 자신의 복음화 신심생활을 위한 몇가지 방법의 예이다.

- ① 미사전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성체를 모심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하는 레지오 마리에를 생활화한다.
- ② 성서읽기를 매일 규칙적으로 실시한다. (예, 10분 이상)
- ③ 가정방문을 통하여 사랑을 나눈다.
- ④ 신심활동 및 단제기도를 자주 갖는다. (예, 9일기도 등)

⑤ 정기적인 신심생활을 실천한다. (예, 매월 키토요일 지키기 등)

이 방법은 꼭 레지오 마리에에만 통용되어야 할 것이 아니다. 교구설정 50주년을 앞두고 “내적쇄신”에 충실해야 할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어야 한다. 굳이 50주년과 연관시킬 필요도 없다. 이는 크리스찬의 평소 생활이어야 한다.

물론, 가정생활의 어려움과 사회조직의 일원으로 시건과 행동의 제한을 받는 우리들인지라 어렵기는 하지만, 능력이 닿는대로 레지오 마리에 활동단원으로써 활동하자. 그것이 어려우면 보조단원이 되어 기도로서 그 활동을 돕자.

● 童顔靑年

노송 분당의 조해형(趙海衡, 베드로)형제는 결혼 50주년(金婚) 기념으로 교단 반세기(敎壇 半世紀)를 떠낸바 있다. “항상 건강하고 근면하신 선생은 정년퇴임도 아랑곳 없다”는 그의 제자의 표현처럼 항상 동안(童顔)으로 활기에 넘쳐 있다.

노송 분당의 사도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조형제는 그의 생을 바친 교단 생활의 회고, 논설, 수필, 단상, 기행문 등을 모아 떠낸 책이 「교단 반세기」이다.

그는 또한 10년전에는 회갑 기념으로 「사랑의 물결」을 냈고, 5년전의 정년퇴임시에는 「최초년 선도의 이론과 실제」를 펴냈다.

□ 교단 반세기...78년 삼화출판사에서 펴냄. 3천원

희 소 식

우리나라에서 수입해 오던 절면조가 가축, 부업, 화초식품용으로써 대량 생산되어 획기적인 선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의 연락 바랍니다.

특 징

노천사육이 가능하며 질병이 없으며 닭에 비해 성장율이 빠르며 초식동물로써 사료비가 40% 절감할 수 있음. 전북 완주군 상판면 죽림리 내정부락

절면조 사육장 요 셉

□ 단상 ⑦

이 세상을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

최 규 환(알베르토)

성경에 “이 세상을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란 말씀이 있다. 이 말은 만일 이 세상을 얻고도 인간의 존엄성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기도 하다. 인간은 만물중에서 존귀한 존재이며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자유와 평등 정의의 실현이 있어야 한다. 이는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망각한 것은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보아야 하는 것은 하늘의 능력을 알고 현실적인 의미에서 가치를 부여하고 생명을 부여한다. 인간은 이 존엄한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고자 한다. 이 생명의 영원한 보존은 여기에 있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신태인 본당 사도회장)

□ 사순절에 읽을만한 책

正義와 平和의 福音

그레말리온 신부 지음

세제는 지금 무엇인가 강력한 정신적 지주를 원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 책은 요한 23세 이후 집필된 교회의 사회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편술한 것들이다.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교회는 등불과 소금의 역할을 다짐하면서, 사회에 대한 강한 책임을 느끼는 교회의 모습을 이 책은 보여주고 있다. 가톨릭 사회원리의 발전이 세계적 사건들에 미친 영향과 사회적 행동자로서 갈등과 복음과 세계문제를 신학적 견지에서 말해준다.

번역은 이 고장 출신(태생지...교산)인 숙명여대 교수 한용희 형제가 맡았다. (79년 성바오로 출판사 펴냄. 값 1,500원)

- 생화·각종 화분·신부부케 전문·제대장식 유명장사 직접지도 꽃꽂이 회원모집
- ◇ 교우 여러분께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진 선 미 꽃 집

전주극장 골목 전화 ② 0921

범 띠도(떡배)·이 마리아



그이가 좋아해요!

나 중 윤(스테파노)

요즘 우리 사회에 유행되는 말 가운데 “형님, 이제 다 끝났는데 거긴 뭐하러 갔니 까?”가 인기 차트에 올라 있다. 이에 못지 않게 트로피를 받기 위해 분투하는 “삼겹살”이라는 말도 무시할 수는 없다.

지난해 돼지값 폭락때문에 농민들은 사료값도 못지내는 양돈을 했다. 덕분에 도회지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질리도록 먹을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삼겹살”이라는 유행어가 탄생되었다. 그런데 삼겹살이라는 말은 돼지에게만 쓰여지는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통용 된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뻔스럽게 얼굴 두꺼운 여자를 가리켜 삼겹살이라 한다.

여자의 트레이드 마크(등록상표)는 수줍음이다. 그런데 요사이는 이를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 40~50년전에는 유학간 남군이 모처럼 집에 와도 남이 볼까 두려워 부엌에 숨어서 행주치마만 만지작거리며 입만 뻥긋거렸다고 한다. 그런데 요사이는 노상에서 남이사 보던말던 얼싸안고 입마추고, 그것도 모자라서 앙탈하는게 현대 여성이라고 한다. 실로 격세지감을 금할 수 없다.

어느 부녀의 대화를 들어보자. —“애, 너는 무슨 속눈썹이 그리도 기냐?” —“아빠, 그이가 좋아해요!”

속눈썹 길게 붙이는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나, 그렇다고 속눈썹을 길게 다는 여자나 궁합(?) 한번 기막히게 잘맞는 커플(짝)이다. 그동안 우리는 경제성장도 했지만, 그보다도 더 우수한 성적으로 성장한 것은 유흥과 타락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흡사 소돔과 고모라를 닮아가는가 싶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당부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소돔과 고모라를 불사른 「유황불」도 되어야 하겠다. 우리가 순교자는 못될 지언정, 적어도 선구자는 되어야 하겠다.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유흥에 이끌리지 않고, 앞장서서 그들을 깨우치고 타이르며 인도해 주어야 하겠다. 이것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길 이 될 것이다.

지금은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속하며 사랑의 실천을 해야하는 때이다.
(김계 천주교회)

* 4지구 묘지관리 재정보고(1979. 1. 1~12. 31)

지난 한해 소리개제에 위치한 4지구 교회묘지에 대한 재정이 보고되었다.

총수입 2백83만3천6백8원—총지출 1백93만3천2백원=잔액 9십만4백8원
수입내역은 묘지사용료(442,500원), 명절때 등의 별초 사례비(726,750원),

이자(111,228원), 이월금(1,553,130원)이다.

지출내역은 회의비(25,200원), 별초 인건비(408,000원), 예탁금(1,500,000원)이다.

본당에서의 미수금이 312,500원이나 된다. 현재의 묘역이 좁아서 또다시 산을 구입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본당에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된다. 묘지 사용료는 1기당 1만원이다. (단, 4지구의 지역의 신자인 경우는 2만원)

요사이(344) 김병오



□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선사합니다 □
송옥의상실
최춘자(로사리아)
(이시계점 옆)
전화 ⑥ 6219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 개업안내
진의상실
개업일자: 80년 3월 2일
장 소: 태평동 2가(태평탕 남쪽)
허 순 덕(테레사) 3-3706

※ 교우여러분께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범모약국
전화 3-5319
김영춘(아오스딩)

* 교우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
시보당 금방
(금·은·보석·각국 시계)
주 미 창 수(바오로)
전주 남문 옆
전화 ② 8188 (자 ⑥0369)

□ 정화 미용학원 학생모집 □
윤경미장원
(신부화장 및 드레스)
이리시 창인동 구역전 앞
최윤경(유리안나)
전 화 : ② 8653

전기·산소용접·샷시·샷시·철제
냉난방다트·합석가공·도장공사
각종간판·현수막·아크릴
전주광고·공업사
대표 이 기 배(요비노)
□ 전주시 다가동 1가 18
☎ ② 1585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공지 사항

- 1. 농촌문제 세미나...3월 4일(화) 오후 2시~7일 12시까지, 가톨릭 센터에서 대상-분회원 중에서 지도자 교육 미 이수자, 참가비-2,000원(숙식 제공)
- 2. J.O.C 노동절 행사...3월 10일 오후 6시, 가톨릭센터 강당에서 행사안내-연극·강의·탈춤·좌담회
※ 산전집회에서 수고하시는 근로자 여러분과 뜻있는 분의 참석을 바랍니다
- 문학강좌...15일 오후 7시30분, 가톨릭 센터에서, 강사-김연기 선생(강원일보 논설위원), 주제-문학과 정치
- 군인들을 위한 목주성금...요십이(1만원)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성태수
사도 회장 사도 김병구

- 1. 프란치스코 3회: 2일(일) 오후 2시, 강당
- 2. 성심 부녀회: 7일(금) 어머니미사 후
- 3. 사도회 월례회: 9일(일) 공식미사 후 사도회 임원, 고문, 감사, 구역장, 반장 빠짐없이 참석해 주세요
- 4. 병자방문: 5일(수)
- 5. 주일학교 입학식: 3월 8일(토) 오후 3시 교과서 구입해 주세요(값 400원)
- 6. 대학생 및 지도위원 개강 모임 6월(목) 오후 6시 대학생 회합실
- 7. 청년 성가대 월례회: 오늘(2일) 저녁미사 후
- 8. 2월 29일~3월 2일(일) 대체로 참석자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 9. 가정방문: 3일부터 이후동, 10일부터 진북동
- 지난주 봉헌금: 319,970원

- 7. 80년 사순절에 즈음하여 특별기도와 고행을 합니다 (유인물에 기재하여 애금통에 넣어 주셔요)
- 8. 80학년 주일학교 개학: 오늘 주일학교 오후 2시에
- 지난주 봉헌금: 334,340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철수

- 1. 수녀님 부임: 3월 7일 수녀님 환영합니다
- 2. 유영도 부제임 한달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3. 사도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 4. 반장 월례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 5. 감사: 수녀님 비품 기증 손홍열, 안준배, 정정순, 박상원, 한완순, 박순덕, 백영순, 장구선, 윤순배, (각 금일봉), 김백숙(공기 10점, 정반 1점), 조귀너(밥그릇 2벌·수저2점), 원일순(전기밥솥 1점)
- 지난주 봉헌금: 132,175원

(노송동)

전화 ⑦7032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나박준
사도 회장 사도 박원근

- 1. 애령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임원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2. 자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 3. 중·고등학생 교리시간: 매주(토) 오후 4시부터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4. 금주의 성경 읽기: 금주에는 누가복음 전체입니다 다같이 이 운동에 참여합시다
- 지난주 봉헌금: 189,075원

(숲정리)

전화 ⑦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 1. 사도회 월례회: 3월 2일 공식미사 후
- 2. 주일학교 개학: 3월 1일 1학년 신입생 입학하세요
- 3. 주일학교 후원회: 3월 4일 오후 2시정각
- 4. 예비자 교리시간 안내: 매주(화·수) 오후 7시 30분 매주 공식미사 후
- 5. 신축기금 내주신 분: (다음주에 발표)
- 지난주 봉헌금: 267,00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조정양
사도 회장 사도 양오열

- 1. 반석회 월례회: 8일 저녁 7시
- 2. 첫 영성체반 교리: 아직 첫 영성체 하지 않은 어린이는 교리반으로 보내 주세요, 부모님과 함께
- 3. 중·고등학생 미사시간 변경: 일요일 오전 8시 30분
- 4. 사도회 월례회: 3월 2일 공식미사 후
- 5. 봉헌금 신입하지 않으신 분은 판공때까지 꼭 신입하시기 바랍니다
- 6. 애령회 기금에 협조해 주신분: 진북회(1만원)
- 지난주 봉헌금: 243,07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병기
보좌 신부 김유석
사도 회장 사도 유성중

- 1. 3월 사도회: 공식미사 후(사제관)
- 2. 유아세례: 오전 9시미사 후
- 3. 주일학교 자모회 발족: 회장-최대순(막달레나), 총무-백홍자(안나), 현중순(테레사)
- 4. 사순절 특별강론: 봉사분과 위원장(3월 2일) 교육분과 위원장(3월 9일)
- 5. 글로리아 성가대 월례회: 3월 6일(목) 오후 7시40분 임원개편: 단장-강명현(바오로), 총무-이영옥(안나), 연습시간 변경: 매주일 오후6시(사제관 2층)
- 6. 오늘의 복사
새벽: 사회자-이신홍, 독서-① 박중구 ② 김대원
공식: 사회자-양현홍, 독서-① 이종두 ② 박도식
저녁: 사회자-김윤주, 독서-① 유석중 ② 이덕수
- 7. 다음주 복사
새벽: 사회자-박중주, 독서-① 박순기 ② 이신홍
공식: 사회자-서정운, 독서-① 이영태 ② 이영희
저녁: 사회자-김윤주, 독서-① 양현홍 ② 이영희
- ※ 3월부터 현금봉투 공개기입 결정(사도회)
- 지난주 봉헌금: 365,595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박성호
사도 회장 사도 조성호

- 1. 성요셉 성월
- 2. 분당피정: 남-15일(토) 오후 1시 30분~16일(일) 공식미사, 여-17일(월) 오후 1시 30분~18일 12시까지(회비 1,000원) ※ 지참물: 성서, 기도서, 성가집, 묵주(강사 교구청 7분)
- 3. 가정방문: 3일-다가동 1·2·3반, 4일-다가동 3·1가 중앙동, 5일-고사동 1·2·3반, 6일-완산동, 7일-화산동, 10일-태평 1·2·3반, 11일-태4·5·6반 12일-태평동 7반·진북동 1반, 13일-진북동 2·3반 14일-진북동 4반(반회장님들 협조 바람)
- 4. 부녀회 월례회: 3월 5일 오전 10시
- 5. 학생회 월례회: 오늘 학생미사(9시) 후
- 6. 성요셉 월례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이정용 형제역)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채수현

-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오후 7시30분
- 2. 국민학교 졸업반 1일피정·고등학생 피정 지도하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 3. 사순절 봉헌카드 작성것 작성하여 봉헌합시다
- 4. 십자가의 길: 평일에도 많이 참석하시어 기도합시다
- 5. 바오로회: 3월 8일 오후 2시30분
- 지난주 봉헌금: 95,770원 어린이헌금: 1,660원 교무금: 190,000원